



보라매



발행처 : 대한민국공군전우회, (사)공군발전협회 발행인 : 이계훈 편집인 : 박수철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Homepage: www.airforce.ne.kr / www.arokaf.co.kr E-mail: kafva-airforce@naver.com 전화: 02-825-8461 FAX: 02-825-8460

공군발전협회 제13차 안보학술회의 개최

항공우주력에 의한 억제와 승리



사단법인 공군발전협회(회장 이계훈)는 5월 28일, 공군 호텔에서 “항공우주력에 의한 억제와 승리”라는 주제로 제 13차 안보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정책실장, 항공우주전투발전단 현역들과 역대 공군참모총장, 공군정책발전자문위원, 각군 예비역, 그리고 학계 전문가, 방위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부승찬 국회 국방위 간사는 축사를 보내 축하의 뜻을 전했다.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후원한 이번 학술회의는 국가이익을 놓고 극한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륙과 해양의 경계면에 위치한 대한민국이 한정된 항공우주자원으로 ‘억제와 승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발표를 접할 수 있었다.

이계훈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강대국의 세력권이 교차하는 경계면에 위치한 대한민국이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양날의 칼로 인식되는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을 국방분야에 지혜롭게 접목시키고 기술보호 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능력 국산화와 우주작전능력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역설했으며,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위원장과 부승찬 간사는 축사에서 전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 북한의 우주공간을 통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항공우주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축사에서 “우주 안보를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군사 분야에서의 우주영역 활용은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늘 행사가 향후 공군의 대응과 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항공우주력 발전과제를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원인철 전 합참의장은 “공군은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앞으로의 과제는 공군이 보유한 전투자산과 탁월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주자산을 연계한 연합·합동 전영역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국방우주력 발전을 주도하는 선도전력(Leading Force)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성훈 박사는 인공지능, 극초음속무기, 무인기, 6세대 전투기, 우주무기, 양자기술 등 신흥파괴기술(EDT: Emerging Disruptive Technology)을 적용한 구체적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들의

장점과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의 안보현실에 맞게 활용하되 전략적 안정성과 지휘결심 능력을 강화하고 안보 불확실성과 치명적 무기에 관련된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점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방위사업청 심현석 서기관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 등에 의해 가스터빈 엔진 기술 이전이 더욱 엄격히 통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유·무인 복합체계를 필두로 한 미래 공군력의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산 항공엔진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 이용식 박사는 주변국의 우주자산 특히, 전자정보 수집 위성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우주무기체계가 장기적으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425 위성을 비롯한 첨단무기체계에 대한 주파수 관리, 전자보호, 작전보안 등을 강화하고 대우주(Counter Space) 작전능력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했다.

정현주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국방대 손한별 교수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그리고 한국국방연구원 박찬우 박사가 해당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예금보호한도 상향 :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9월 1일부터)
- 중소기업 매출기준 개편 :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
- 입양가능 동물 수 확대 : 3마리에서 10마리로 증가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최대 연간 40만원 지원
-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 시 소득공제 : 신용카드 30% 공제
- 모바일 신분증 사용 확대 : 네이버, 토스, 카카오 앱에서 사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s://whatsnew.moef.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립서울현충원 합동참배 실시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본회는 6월 5일 역대공군참모총장 및 군 원로선배님과 공군예비역단체인 공사총동창회, 학사장교회 및 공군전공상 유공자회 임원 등 약 70여명과 함께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 충혼탑에서 합동참배를 했다.

이날 참석자 모두는 조국을 위해 순국하신 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헌화, 분향 및 묵념 등 참배행사를 엄숙히 거행하였으며, 합동참배 전·후에는 신분별 또는 개인별로 연고묘역을 찾아 옛 전우들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이계훈 전우회장은 방명록에서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공군전우회가 되겠습니다”라는 다짐으로 공군예비역을 대표하여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이계훈 회장 강릉지회 격려방문

본회 이계훈 회장은 5월 21일 강릉지회 총회에 참석하여 지회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강릉지회 2, 3, 4대 회장을 지낸 원로회원 최송원 작가의 두번째 시집 ‘신이여 어찌하오리까!’ 출판을 기념하는 자리로서 전체 47명의 회원 중 35명이 참석하여 출판을 축하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가졌다.

최원규 강릉지회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모두는 강릉기지를 태풍 루사의 위기에서 구해냈고 상처를 치유했던 저력을 가진 용사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는 저력을 지닌 집단이며, 그 힘을 모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강릉지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본회 이회장은 축사에서 “황용기 전 지회장의 노고에 감사하며, 지난 3월 새롭게 취임한 최원규 지회장의 추진력과 리더십으로 강릉지회가 더욱 발전하리라 믿는다”고 하면서 “올해 목표인 서로 정을 많이 나누는 단합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계훈 회장 ROKAFIS 회장 초청오찬 참석

본회 이계훈 회장은 5월 12일 ROKAFIS(공군 인터넷전우회)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의 초대를 받아 환담을 나누며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는 ROKAFIS 사무총장 이병권 예)소장과 공사 11기 정훈 고문, 그리고 전우회 수석부회장 박신규 예)중장, 공군발전협회 항공우주력 연구원장 윤우 예)소장 등이 함께 하였다.

이회장은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의 공군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특히 하늘 사랑장학재단과 격오지 체력단련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전 공군인을 대신하여 감사를 표했다.



故 이근석 장군 제75주기 추모식 참석

공군전우회와 공군 군수사령부가 주관하는 故 이근석 장군 제75주기 추모식이 7월 4일 대구기지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이계훈 회장을 비롯하여 중앙회 임원, 대구지부 회원 등 40여명과 대구기지 지휘관 참모, 장병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고인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故 이근석 장군은 공군창설 7인 간부 중 한명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으로 건너가 F-51D 무스탕 전투기를 단 1회의 훈련비행을 받고 대구기지로 가지고 와 바로 전투를 실시한 10명의 한국 조종사 인수단장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으며, 첫 출격 바로 다음날인 1950년 7월 4일 북한군 전차대열을 공격하던 중 적 대공포에 피탄되자 적 전차를 향해 돌진하여 장렬히 산화한 호국영웅이다.

본회 이계훈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최근 일어난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 증명되었듯이 공군력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는 압도적인 공군력을 건설하는 것만이 선배님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이계훈 회장 충주시회 격려방문

본회 이계훈 회장은 6월 17일 충주시지회를 방문하여 회원들과 운동과 만찬을 함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조동주 충주시지회장 및 19전비 단장을 역임한 이정석 장군을 포함한 내빈과 지부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이계훈 회장은 “공군전우회 충주시지회에서 회원들 간의 친목 도모는 물론 현역과 유대강화를 통해 공군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회원들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다”면서 “공군 예비역들이 군인 출신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며 희망을 주는 조직으로 열심히 활동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조동주 충주시지회장은 인사말에서 “공군전우회 중앙회 이계훈 회장님의 충주시지회 공식 방문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욱 충주시 공군전우회 회원들의 유대강화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공군전우회 일원으로 자긍심을 높이는 활력소가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154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보라매상 시상

본회 이계훈 회장은 5월 27일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열린 제154기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하여 노현호 소위에게 공군전우회에서 수여하는 보라매상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날 임관한 442명(여 110명)의 신입장교는 3개월간의 군인화, 간부화단계로 이루어진 강도높은 교육훈련을 통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지휘능력, 군사지식 등 공군 정예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구비했다. 이날 임관식은 수료증서 및 상장 수여, 임관사령장 및 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축사 및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순으로 진행됐다.



공군학사장교회, 공사총동창회 초청 협력간담회 실시

본회 이계훈 회장은 6월 16일 공군학사장교회와 공사총동창회 임원을 초청하여 공군 예비역단체 발전방향과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계훈 회장은 “벌써 취임한지 1년이 넘어 임기가 10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공군 예비역들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며, 군 생활 중에 가졌던 추억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여는 동시에 예비역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학사장교회와 공사총동창회의 관심과 후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병채 공군학사장교회장 및 원인철 공사총동창회장은 한목소리로 공군 예비역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역할을 다 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참석한 임원들 역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번 모임을 계기로 협력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이계훈 회장 공군 로카피스 충남지부 모임 참석



본회 이계훈 회장은 4월 18일 공군 ROKAFIS(인터넷 전우회) 충남지부 정기모임에 참석하여 정재광 지부장을 비롯한 회원들을 격려하였다. 특히 이번 모임에는 유재은 로카피스 경남지부장과 이종혁 헌병대지회장 등이 같이 참석하여 지역, 특기 간 교류 활성화에 대한 뜻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날 모임에서 이회장은 2025년도 목표인 '서로 정을 많이 나누는 한 해'를 만들고자 거주지인 충남지부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여러 회원들과 함께 공군 복무시절 즐거웠던 추억을 나누었다. 또한 이번 회장의 ROKAFIS 모임 참석을 통하여 공군 전우회 각 지부지회와 ROKAFIS 지부 회원들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하였다.

故 딘 헤스 대령 유가족 토크 콘서트 진행

공군발전협회가 후원한故 딘 헤스 대령 유가족 토크 콘서트가 5월 23일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진행되었다.

홍성표 국방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공군참모총장 재직 당시 추모행사를 시작한 사연과 제2기 추모식 때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에 기념비를 설립한 경과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고인의 발자취를 사진을 통해 설명을 듣고, 과거 NBC에서 방영되었던 'This is your life' 프로그램 동영상상을 시청함으로써 딘 헤스 대령의 대한민국에 대한 기여와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함께 참석한 세 아들(로렌스, 에드워드 앨런, 로널드 헤스)의 회고와 홍성표 교수가 전해준 오하이오주 마리에타시에서 보냈던 딘 헤스 대령 가족과의 이야기 등은 참가자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고 이어지는 오찬에서도 추억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이계훈 회장故 김신 장군 9주기 추모식 참석

고(故) 김신 장군 9주기 추모식이 5월 19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사)김신장군기념사업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추모식에는 본회 이계훈 회장을 비롯하여 이영수 공군참모총장과 역대 참모총장 등이 참석하였다.

유족 대표로는 백범김구기념관장인 장녀 김미 여사와 공군 역사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위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함께했다.

1922년 중국 상하이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으로 태어난 김 장군은 1944년 중국 공군군관학교에서 기초군사교육을 수료하고, 1946년부터 1년간 미 공군 랜돌프 기지에서 정식 비행훈련을 받아 조종사로 거듭났다. 광복 후 1948년에는 공군 학사사관후보생 2기로 입관해 1949년 공군 창설에 이바지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전투 조종사로 참전한 김 장군은 총 19회의 전투 출격 임무를 완수하며 눈부신 전공을 세웠다. 특히 공군 3대 전승 작전 중 하나로 알려진 1952년 1월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에서 크게 활약했다.

제6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재임 기간 전투조종사 중등비행훈련 강화를 위해 T-28 훈련기를 도입하고 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공군의 항공작전 역량을 크게 증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전역 후 교통부 장관, 국회의원, 독립기념관 초대 이사장직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쓰다 2016년 작고했다.



군악 제232·233기 전역회원 추억의 부대방문

본회 이계훈 회장 초청으로 약 50년 전 전역한 군악 제 232, 233기 선배 노병들이 공군 전우회 중앙회가 위치한 공군 항공안전단, 옛 공군본부 자리를 방문하여 옛 추억을 회상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사들과 선후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6월 12일, 이래철 군악동우회장 등 10명의 군악대 예비역 회원들은 과거 자신들이 근무했던 공군본부 일대를 돌아본 후 이계훈 회장과 환담을 가졌다. 이계훈 회장은 "청춘을 보냈던 소중한 시기의 추억을 공유하고 50년 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기적인 모임을 유지하고 있는 군악동우회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추억은 기억보다 강하다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아름다운 추억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준비한 선물과 함께 전우회 배지를 직접 달아주었다.

방문 일행은 이어서 항공안전단을 방문하여 운영계획처장 주관 부대소개와 홍보영상 시청을 마친 후 현역 병사들과 만나 생활관을 돌아보고 준비해 온 음료수를 병사들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항공안전단 인사행정처장의 안내로 부대 병사식당에서 병사들과 식사를 하면서 자신들의 경험과 현재 병사들의 생활 등에 관해 답소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이계훈 회장 국군방송 인터뷰 진행

본회 이계훈 회장은 6월 25일 용산에 위치한 국군방송(KFN Radio)을 찾아 6월 호국보훈의 달 특집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날 인터뷰는 국군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고품격 시사 토크쇼 프리즘"의 일요초대석 사전 녹음으로 김창욱(전 MBC 아나운서) 진행자와 함께 호국보훈의 달 의미를 되새겨보고, 이계훈 회장의 군 생활과 공군전우회 및 공군발전협회에 대한 내용을 진솔하게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군 출신으로서 순국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을 상기하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는 소감과 전투조종사로 근무 당시 긴박했던 상황, 그리고 참모총장으로 재직 시 공군창군 60주년 기념사업 등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는 등 약 40여분 동안 유익한 내용을 전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 인터뷰는 사전 녹음으로 실제 방송은 6.29(일) 저녁 17:00부터 국군방송 KFN Radio(서울경기 96.7MHz, 유튜브 등)에서 방송되었다.



이계훈 회장 본회 김성춘 회원 백수연 참석

본회 이계훈 회장이 5월 29일 공군호텔에서 열린 김성춘 회원(예 대령/현인) 백수연에 참석하여 축하와 함께 따뜻하게 준비한 선물을 건넸다.

김성춘 회원은 6.25전쟁 당시 L-5, T-6 항공기에 탑승하여 적 동향 정찰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66년 전역 후 서예, 서화에 입문하여 2005년 호정 김성춘 서예집을, 2013년에는 서화집을 발간하는 등 활발한 창작활동을 해오신 참전용사로 백수연을 맞이하여 가족, 친지 등 200여명의 하객이 김성춘 회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였다.

이계훈 회장은 축사에서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어서 늙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 김성춘 대선배님은 참다운 군인에서 서예, 서화의 길로 계속 꿈을 잃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백수연을 맞이하셨지만 마음만은 청춘이며, 선배님의 발자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선배님이 지켜오신 가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주인공과 그 가족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였다.



여영록 예)대령 내방 및 '한국의 초기 항공산업' 책자 증정

본회 회원인 심원 여영록 예)대령이 5월 21일, 중앙회를 방문하여 이계훈 회장과 환담을 나누고 새로 발간된 책자를 증정하였다.

여 회원은 군 생활 중 군수참모를 거치며 공군 항공정비 및 군수체계 발전에 기여하였고, 전역 후 국내 항공산업에 몸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초기 항공산업,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라는 책자를 새롭게 발간하였다고 하며, 항공산업 발전과정의 체험적 사실들이 향후 공군 전투력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신간 발간을 축하드리며, 미래전의 핵심 전력인 공군력 증강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항공산업 육성의 중요성은 공군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으므로 이번에 발간된 책자가 현역 및 예비역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임 국방부장관 ‘민간’ 출신 안규백 의원 지명

국민주권정부 첫 국방부장관으로 5선의 안규백 의원이 지명됐다. 6월 23일 발표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에서 지명된 안규백 의원은 1987년 정치 활동을 시작한 이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약한 국방 전문가다. 5선의원을 지내는 동안 2016년부터 2년간 국토교통



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을 제외하면 계속 국방위에서 국방전문가로 역량을 축적하였으며, 19대 국회에서는 국방위 간사, 20대 국회에서는 국방위원장을 지냈다.

안 후보자는 인선 발표 이후 “신뢰와 소통, 강력한 힘의 세 기둥으로 흔들림 없이 든든한 국민주권정부의 국방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가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취임하게 되면 64년만에 문민 국방부장관이 탄생하게 된다.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가 4월 22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 X의 로켓 ‘펠컨9’에 실려 우주로 발사된 후 우주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 지상교신에 성공함으로써 ‘425 사업’ 완료까지 8부능선을 넘었다. 이로써 정상 운용 중인 1~3호기와 함께 군집위성 운용체계가 한층 보강돼 대북 감시정찰 역량이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하어 주야간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 확보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앞으로 ADD 주관 아래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 시험을 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 평가를 거쳐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SAR 탑재 위성인 마지막 5호기도 올해 안으로 발사되면 ‘425 사업’은 마무리된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호기는 합성개구레이더(SAR)를 탑재

필리핀에 FA-50 12대 추가 수출, 1조원 계약 성사

방위사업청은 6월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FA-50 전투기 12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필리핀 국방부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금액은 약 7억 달러(한화 약 1조원)로,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다. 필리핀은 2014년 FA-50 12대를 처음 도입한 이후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운용해 왔다. 2017년 마라위 전투와 지난해 7월 호주에서 열린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피치블랙(Pitch Black)’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이번 계약은 양국 정부 간 지속적인 외교 협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지난 3월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주니어 필리핀 국방장관을 만나 방산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FA-50의 운용물 제고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FA-50이 필리핀 국방력 강화에 지속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테오도로 국방장관은 “FA-50은 필리핀 공군의 핵심 자산



으로, 한국의 우수한 방산 기술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며 “한국과 방산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석 청장은 이번 계약에 대해 “K방산의 기술력과 국제적 신뢰를 다시 한번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필리핀 측이 한국 정부와 KAI에 깊은 신뢰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FA-50은 필리핀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태국, 이라크,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140대 이상 수출됐다. 필리핀 개량형 버전인 FA-50PH는 필리핀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하고 있다.

예비역 장교, 준·부사관도 사회에서 군 경력 공식 인정

군에서 쌓은 자격·교육·훈련 등의 경력을 사회에서 공식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달부터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역 장교, 준·부사관도 인터넷에서 국방 자격(12종)과 군 경력이 포함된 문서인 ‘직무능력 인정서’ 조회·발급이 가능해지면서다. 이 문서는 구직활동이나 기업 인사관리 등에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7월 1일부터 군 간부의 국방 자격과 직무능력 인정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무능력은행’ 사이트에서도 조회·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취득한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직무 관련 정보를 통합관

이두희 국방차관 취임

6월 27일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두희 전 미사일전략사령관이 새롭게 국방차관에 취임하였다. 이두희 신임 국방부 차관은 인공지능(AI) 첨단기술을 활용해 압도적 군사력을 건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아울러 “K-방산 역량 강화와 방산 수출에 힘쓰며, 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의 동맹과 우방국들도 자국의 안보와 경제를 최우선으로, 다양한 변화

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군은 한미동맹 기반의 억제 능력을 확고히 하면서 국익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국방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경산 태생인 이 차관은 육군사관학교 46기로 1990년 소위로 임관해 34년 동안 군 복무 중 한미연합군사령부 화력처장, 28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1군단장,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미사일전략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이 차관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제26차 한미통합국방협의회 개최

한미 양국이 국방 분야 협력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 국방부는 5월 1일과 2일(현지시간)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했다.



KIDD는 한미 국방 당국 간 고위급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존 노미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대행, 앤드루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이 양측 수석대표를 맡았다.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도 참석했다.

양측은 회의를 통해 한미동맹 국방 분야 협력 전반을 평가하고, 공동의 이익을 발전

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이번 회의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산 첫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안전분리 비행 성공

방위사업청은 국내 최초로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유도탄의 안전분리 비행시험을 지난 6월 23일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안전분리 비행시험은 항공기로부터 유도탄의 외장이 안전하게 분리돼 항공기의 구조물 또는 외부 장착물과 간섭이 없고, 외장 분리 시 항공기 반응 특성이 임무 성능을 저해하지 않게 되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시험은 시험용 FA-50 전투기에 분리탄을 탑재해 진행됐다.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 동안 31소트(출격)를 통해 △플러터 △조종 안전성 △하중 △항공전자 △환경시험 등 항공기 연동 비행시험을 한 후 시행했다. 2027년부터는 KF-21 전투기 시제기에 탑재해 후속 개발시험 및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며 작전운용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사업은 KF-21 전투기에 탑재해 전쟁 초기 적 후방의 핵심표적을 장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을 국내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F-15K 전투기에 탑재된 독일의 타우러스(TAURUS) 도입이 1차 사업, 이번 국내 개발이 2차 사업이다. 2차 사업은 타우러스와 동급 또는 성능이 우위인 공대지유도탄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리하고, 필요할 때 이를 하나의 문서(직무능력 인정서)로 발급받는 시스템이다. 이는 취업·채용 때 경력 등을 뒷받침할 근거로 쓸 수 있다.

국방부는 2024년 7월부터 국방망과 인터넷을 연동해 군 경력을 직무능력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해 왔다. 이에 올 1월부터는 현역 간부를 대상으로 국방망에서 ‘군 직무능력 증명서’를 조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역자 대상의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17일 시스템 연동이 완료되면서 일반 인터넷 환경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군 직무능력 증명서’는 각 군 참모총장 명의로 국방망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발급한다. 군에서 수행한 업무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맞춰 정리한 문서다. 반면 직무능력 인정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발급되며, 군 경력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의 자격·교육·훈련 등 전 생애에 걸친 경력을 포함한다.